

# “노래하고 위로 받고...여기 오면 행복해요”

전남대 정애련 교수 재능기부 '정애련합창단'의 즐거운 음악생활

작년 6월 시작...단원 55명으로  
50~70대 위주 매주 목요일 연습  
“단원들 열성에 제가 반했어요”  
12월 고통정보고서 봉사 연주회



봉사공연을 펼치고 있는 정애련 전남대 음악교육학과 명예교수(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와 정애련합창단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름다운 가사, 낮은 멜로디의 가곡이 귀에 감긴다. 내친 김에 신창곡을 정했다. 윤희하 곡 '보리밭'과 이수인 곡 '별'. 함께 따라 노래하며 오랫동안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광주 윤림동 무등산 자락 한 건물 3층에서는 매주 목요일 노래소리가 흘러나온다. '정애련합창단'의 연습시간이다. 정애련합창단은 지난 8월 전남대 음악교육학과에서 정년퇴임한 정애련 교수가 무보수 자원봉사로 지도를 맡고 있는 단체다.

합창단은 지난해 6월 처음 시작됐다. 정씨가 오랫동안 다니던 요가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재능기부를 하기로 했다. 10여명이 모여 시작한 합창단은 지금은 55명으로 늘었다. 대기가 명단도 빠곡하다. 단원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유현숙(72)씨부터 최연소인 안정주(53)씨 등 50~70대가 주류다. 전남여고 42회 졸업생은 17명이 함께 다니며 노래를 배운다.

정애련합창단은 다양한 장르 중 주로 가곡을 배운다. 가사와 멜로디가 아름다운 양희은의 곡들도 가끔 노래한다. 레퍼토리는 벌써 150여곡에 달한다.

정씨의 교습법은 '눈높이'에 맞춘다. 발성법이며 호흡

등을 귀에 속속 박히게 아주 쉽게 가르쳐 준다. 간간이 농담을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터라 연습 중에는 자주 웃음이 터졌다.

“이분들의 열성에 제가 반했어요. 제 자신이 즐겁죠. 의무감만으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33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받은 만큼 받았죠. 이제는 베푸는 게 당연합니다. 제자들도 뜻을 같이 해 몇차례 단원들을 위해 따로 공연도 해주곤 합니다.”

연습 후 둘러 앉은 단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여기 오면 행복하다.”

“정신과 의사가 따로 없어요.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즐겁죠. 집안일 스트레스도 풀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합창단에서 인연을 맺은 이들의 도움으로 잘 해결했어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노래도 배우고 새로운 만남도 갖고, 무엇보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강의는 쉽고, 호흡과 발성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듣는 건 좋아해도 실제 노래하는 건 망설였죠. 노래방에 가서도 노래하지 않았어요. 못하는 사람도 마음껏 불러라 배려해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합창단의 첫 무대는 지난 8월 전남대에서 열린 정애련 교수 정년 기념식이었다. 울동까지 함께 결연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등을 부르며 모두 행복했다.

“정애련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합창단이라 더 떨렸어요. 교수님의 가르침이 묻어나니까. 실수 할까 걱정도 많았지만 저의 실력의 200%를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웃음) 배웠던 것, 고마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황인미 단장의 말이다.

이날 공연은 감심장 정교수의 마음도 흔들어 놓았다. “30년 넘게 공연을 했지만 한번도 가사를 까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은 울컥해서 가사가 잘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웃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관계예요.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은 관계잖아요. 지금도 단원들에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원들이 노래로 치유받고 있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좋죠.”

정애련합창단은 다른 여타 합창단처럼 정기연주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봉사 공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오는 12월 고통정보고등학교에서 노래한다.

노래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현장, 그 노래로 행복해진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으며 더 행복해지는 현장을 만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몽우 정세기 개인전 내달 1일까지 무등갤러리



▶'나라꽃16 그리운 대화'

몽우 정세기 작가가 '나라꽃 무궁화로 세상을 노래한다'를 주제로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세번째 개인전을 연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무궁화'를 소재로 한 비구상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5·18 등 무거운 주제로 실험적인 작품을 했던 정씨는 1990년 첫번째 개인전 이후 동아보건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동안 전시를 열지 않았다. 지난해 광주아트페어에 참여하며 작품활동을 재개한 그는 최근작에서 밝고 건강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나라꽃16 그리운 대화', '나라꽃16 별이 빛나는 밤'은 파란색 등

은 바탕에 하얀 무궁화꽃이 선명하게 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4년을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추모전이기도 하다. '나라꽃16 타는 항불'은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정씨는 “학교에 몸담으면서도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작품활동을 활발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조선대 미술학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1992) 수상, 중앙미술대전, 전남미술대전에서 다수 입상했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박흥철 '자연역자' 최우수상



유·스퀘어문화관이 지난달 '우.행.순(우리 삶의 행복한 순간)'을 주제로 열었던 '제8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에 '자연역자'(박흥철)가 선정됐다.

'자연역자'(사진)는 바닷가로 여행을 떠난 친구 9명이 석양을 배경으로 재미

있는 몸동작을 표현한 작품이다. 최우수상에는 '보고싶어 동생아'(최승관), '우리'(박다라)가 이름을 올렸다.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 26점은 내달 3월까지 유·스퀘어 2층 야외갤러리에 만날 수 있다.문의 062-360-84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신철호 작가 초대전

내달 6일까지 국운미술관

인간 내면 정서와 관념을 추상미술로 표현하고 있는 신철호 작가가 '서정적 은유(Lyrical Metaphor)'를 주제로 국운미술관에서 11월6일까지 초대전을 갖는다.

전시 주제에서 '서정'은 사람의 정서, '은유'는 암시적인 관념을 의미한다. 간결하면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통해 희망, 사랑, 열정을 전달한다.

신 작가는 단순한 형태와 단조로운 색채를 사용하며 동양적 서정성과 감성을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트렌드 자료를 모아 공통된 패턴을 분석해 기호나 이미지로 재해석한다. 작품 'You&I'은 붉은 형상 2개를 그리며 인간 관계를 표현했고 'Ochre'는 캔버스에 황토색 전을 붙여 우리 삶을 담았다.

고흥 출신인 신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에서 공부했다. 한국미술대전 비구상 분과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의 062-232-733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You&I'

##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10주년

내일 토론회 등 기념행사 다채

지난 2006년 설립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원장 이주노 교수)이 27일 전남대학교 용지관에서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제1부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오후 2시30분)는 '문화전문 인력 양성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과 이한호 주스컴퍼니 대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무용 부원장, 김시범 안동대 한국문화유산전문대학장 등 교수 9명이 토론을 펼친다. '문화전문대학원 10년을 말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2부 기념식(오후 7시)에는 역대 원장단과 교수진, 동문 400여명이 참여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 광주은행에서는 '한국지역문화학회 창립학술대회'가 열린다. '지역문화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전택영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박원재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오장근 목포대 교수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문의 062-530-407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황영성·박석규·송웅·박동민·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운대

###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 11(화) - 11. 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201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A KOHLER COMPANY

# novita is COMFORT

2016.10.04 ~ 2016.11.30

품격1 **바스**  
참 편한 비데  
**Comfort**

NEW

단위  
BD-N443(설치비 별도) / BD-N433(설치비 별도)

**279,000 / 249,000**

+ 브레프 피워 액티브 5종

품격2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속형 비데 특가

BD-N4301(A5)설치비 별도 / BD-N4231(설치비 별도)

**159,000원 / 159,000원**

품격3 새 비데를 할인가!  
비데 보상 판매

BD-N4433R(S)1(설치비 포함)

**219,000원**

\*타사 제품 가능

노비타 비데로 욕실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행사비데 구입시 1년치 필터(2개)증정!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본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www.novita.co.kr

구입문의 | 비데프라자 (062)515-1144